데스크 시각

페퍼스 전력의 마지막 퍼즐은 팬심이다

윤영기
특집·체육부장

AI 페퍼스 여자 프로배구단이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를 하고 있다. 최근 세 경기를 치르는 동안 1세트를 따낸 게 유일한 전과다. 나머지 두 경기는 내리 3세트를 내주고 3-0으로 무릎을 꿇었다. 인공지능(AI)처럼 코트를 훤히 꿰뚫고 손발이 척척 맞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여의치 않았다. 후추(Pepper)처럼 화끈한 경기를 기대하기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국내 프로배구단 감독들은 시즌 초 최약체로 AI 페퍼스를 꼽았다. 눈에 띄는 주전 선수가 없고 팀워크를 다질 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체전에 참가한 신인 여섯 명이 복귀한 지난달 14일에야 선수단 전원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사실 데뷔 자체가 무리인 셈이었다. 그런데도 창단 첫 경기에서 KGC 인삼공사를 상대로 1세트를 따냈다. 기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게다.

막내 구단의 패배 계속되고 있지만

페퍼스는 창단 팀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받아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위권 선수 여섯 명을 쓸어 담았다. 언뜻 보면 외형은 화려했다. 하지만 세터 박사랑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선수들은 예년 같으면 지명받기 힘든 선수들이라는 게 중론이다. 올해는 해거리 현상이 유독 심해 애초 큰 재목감이 드래프트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다.

냉정하게 전망하자면 페퍼스 팬들은 앞으로 더 심한 열패감을 맛보게 될지도 모른다. 페퍼스는 KGC인삼공사의 20연패(여자 프로배구 최다 연패) 불명예 기록을 깰 수도 있다. 배구는 잘 알다시피 조직력의 스포츠다. 빼어난 선수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경기가 아니다. 공은 둥글고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지만, 배구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다. 더구나 야구처럼 10-0으로 졌던 팀이 다음날 같은 팀을 10-0으로 꺾는 '도깨비 놀음'은 배구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페퍼스의 앞날이 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진정한 응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들어 보자. 대한민국 여자배구 팀은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에서 터키를 극적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설령 졌다고 해도 그다지 비난받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듯 터키는 우승 후보였고 대한민국은 한 수 아래 팀이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응원했다. 그랬기에 감동이 더 컸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페퍼스도 같은 눈높이로 봐야 하는 신생 구단이다.

승패라는 시각을 걷어 내고 보면 AI 페퍼스 선수들에게는 대부분 인생유전이 있다. 굳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멤버 대부분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들이다. '외인 구단'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정도다. 이들 대부분은 원소속 구단에서 벤치 신세를 면치 못했다. 누군들 후보에 머무르고 싶었을까마는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을 것이다.

그들의 삶은 우리 인생과 닮아 애잔한 구석이 있다. 이들에게 이미 예견된 패배를 질책하는 것보다는 희망을 키우도록 박수를 보내고 격려해 주는 게 더 필요한 시점이다. KIA타이거즈와 광주 FC가 바닥권을 헤매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열받는다'며 짜증을 낼 필요가 없다. 또 하나 꼴찌 팀이 추가됐다고 외면하면 오히려 선수에게도 팬들의 마음에도 독이 될 것이다.

열렬한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 내야

페퍼스는 다른 팀에 비하면 장기간인 5년 동안 연고지를 유지하기로 광주시와 계약을 맺었다. 약속 기간이 경과하면 여자 농구팀 신세계 쿨캣이 2006년 홀연 광주를 떠나 부천으로 연고지를 옮긴 것처럼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페퍼스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마치 독일 3부리그 팀인 뒤나모 드레스덴의 팬들처럼.

뒤나모 드레스덴은 지난해 말 홈구장에서 열리는 다름슈타트와의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2라운드(32강)의 티켓 7만2112장을 팔았다. 홈 구장이 총 3만2249석 규모이니 좌석수보다 두 배 넘게 팔린 셈이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경기였지만 팬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던 구단이 제시한 특별티켓을 기꺼이 구입했다. 이런 애정을 보여 주는 팬들이 있는 한 그 팀은 연고지를 쉽게 떠나지 못할 것이다.

프로 구단은 팬들이 외면하면 바로 연고지를 버릴 수 있다. 페퍼스도 예외는 아니다. 페퍼스가 떠나게 되면 초등학생 팀과 실업 팀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배구계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 광주는 또다시 동계 실내 스포츠 불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페퍼스를 지키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홈경기가 열리는 날 경기장을 찾아 배구를 즐기면 된다.

은펜칼럼

개천이라도 있어야 용이 나지

옥영석
자활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경사났네 경사났어. 그것도 19년 만에." 지난 9월 말 권순우의 ATP투어 아스타나오픈 우승은 한국테니스계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었다. 스물세 살 권순우는 키가 180㎝에 불과해 190㎝가 넘는 장신들이 즐비한 국제 무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빠른 발과 힘찬 포핸드로 호주의 상위 랭커 제임스 더크워스를 제압했다. 평소 서브가 약하다는 평을 들어오던 그가 서브 각도와 방향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드롭샷을 적절히 사용하여 상대를 앞뒤로 더 뛰게 해, 첫 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3-6으로 지고 있다가 8-6으로 뒤집었고 결국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겼다. 이는 우리나라 테니스선수가 투어급 대회에서 우승한 세 번째 기록으로 추세로 보면 랭킹 50위도 그리 멀지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 선수의 첫 번째 우승 기록은 1982년 WTA 애본챔피언십을 제패한 남원 출신의 이덕희 여사가 세웠다.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테니스 선수였으며, US오픈 16강에 진출해 메이저대회 12회를 우승한 전설 빌리진 킹을 제압하였고, 지금도 사재를 털어 이덕희배 국제주니어대회를 열고 있는 진정한 한국테니스의 개척자이다. 해외 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그 시절 지금도 만만치 않은 투어 생활을 40년 전에 시작해 우승까지 일구었다.

두 번째는 2003년 이형택의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우승으로, 그는 당시 세계 랭킹 4위였던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페레로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2000년과 2007년 US오픈 16강에 두 번이나 올랐으며, 31세에 자신의 랭킹을 최고 36위까지 올려놓아 우리나라 남자 테니스의 자존심을 높여 주었다. 권순우가 출전하는 대회에서 외국의 방송 해설자들이 이형택의 US오픈 16강을 아직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감자 바우'의 크기가 '큰 바위 얼굴'보다 더 크고 높아 보인다.

권순우의 투어 대회 우승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골린이'(골프와 어린이의 합성어, 초보 골퍼)에 이어 '테린이'(테니스와 어린이의 합성어, 테니스 초보자)를 뜨게 하고 있다. 골프에 비해 테니스는 장비나 레슨비 등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고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데다 요가나 필라테스 등 실내 스포츠가 어려워지면서 인기를 더해 가고 있다. 테니스가 서구의 상류사회에서 시작된 귀족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한데다 여성들에게는 테니스 패션의 자유로움과 고급스러운 매력이 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 테니스 치는 사진 올리기가 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 대형 온라인몰에서는 테니스 관련 용품 매출이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75%가 늘었고, G마켓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153%나 늘었다 한다. 특히 테니스 전문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테니스 라켓이 크게 모자라 30% 정도 할인해서 팔던 3~4년 전 모델까지 소진되어가고 있다니 그 인기를 짐작하고 남는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고장의 테니스가 이런 테니스 붐에 편승하지 못하고 활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김문일, 이덕희, 장의종, 김연숙 등 시대를 대표할 국가대표를 배출하였지만 2000년대 이후 이렇다 할 스타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12월 조선대가 테니스팀을 재창단하여 1년 만에 전국추계대학연맹전을 제패하는 등의 적잖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초·중·고·대학을 나와도 이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실업팀은 없다.

최근 광주시를 연고로 한 여자 프로배구단 AI페퍼스가 창단해 지역 스포츠팬들을 들뜨게 하고 염주체육관에는 모처럼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프로구단 하나 만들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닐 터, 모기업과 협회, 광주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지나는 길에 녹색 천막만 봐도 엔돌핀이 솟는 테니스광에게는 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기업은 많지만 테니스팀 하나 만들 정도가 안 되는 건지, 해외 대회에는 수백억 원을 후원해도 동네잔치에는 나올 것이 없어선지, 골프단은 넘쳐나도 지역을 연고로 한 제대로 된 실업 테니스팀 하나 없다는 게 아쉬움을 넘어 가슴을 아프게 한다.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 개천마저 우리 동네에는 없다는 게 더욱 으스스해지는 가을날이다.

기 고

자치분권 2.0 시대, 재정분권이 관건이다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

올해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아울러 지난해 지방자치법, 지방일괄이양법, 자치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이 이끄는 자치분권 2.0시대에 진입한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치분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추진하였다. 재정분권의 핵심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개선하고 국가와 지방, 광역과 기초의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하는 1단계 재정분권이 완료되었고, 지난 7월 22일 당·정·청이 참석한 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에 합의한 2단계 재정분권(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방소비세율이 총 14.3% 인상되고,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2.6대 27.4 수준까지 도달할 예정이다.

필자 또한 전국 자치구청장을 대표한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재정특위 회의에 계속 참여하며, 우리 주민들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도록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분권은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황이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따른 증가액은 광역 66%, 기초 34%의 비율로 배분되어 광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 중심'이라는 기조로 추진되었으나 지방소비세 4.3% 인상에 따른 순증분 1조 원 배분이라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다.

그나마도 순증분 1조 원 배분은 광역 60%, 기초 40%로 이루어졌으며, 조정 교부금을 고려할 경우 광역 42%, 기초 58%로 기초가 유리하다고는 하나 순증금액이 적어 그 효과는 미미하다.

광주시의 상황에 비추어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합하여 본다면 지방소비세율 14.3% 인상에 따른 증가분 배분은 광주시 64.9%, 자치구 35.1%로 이루어졌다. 광주시에 배분된 비율은 6대 광역시 평균과 비교하여도 2% 이상 높은데, 광주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타 광역시 자치구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것이다.

더구나 배분된 지방소비세도 지방 이양 사업과 사회복지 국비 매칭 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고려한다면, 자치구는 순수한 재정 확충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 시·도로 이양한 사무에 대해서만 재정 지원을 하고 시·도에서 자치구로 이양된 사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어 인건비·경상비 등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자치구가 떠안고 있다.

그리고 중앙 부처나 시의 신규 복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자치구와 협의 없이 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어,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으로 5개 자치구는 21억 원을, '신입생 입학 준비금' 사업으로 17억 원을, 어린이집 안심 보육비 사업에서도 6억5000만 원의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시·구비 분담 비율이 필요한 사업 중에 타 광역시 분담 비율과 비교하여 조정이 필요한 6개 사업에 대해 광주시구청장협의회가 뜻을 같이하여 지난 10월 26일 시·구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하였다. 특히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시와 구에서 중복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일원화가 필요하며, 기관별로 상이한 지원 금액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다.

하지만 시에서는 구청장협의회의 당초 증액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검토하고 있어, 자치구는 재정분권으로 늘어난 재원보다 새로운 복지사업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자치구의 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재정 자주도가 가장 낮은 하위 30위권은 모두 광역시 자치구이며, 사회복지 비율 상위 30위권 중 27개가 광역시 자치구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건전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하고, 광주를 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데 있어 후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가치다. 재정 자립에 의한 각 자치구 발전은 곧 광주시 발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풍요로운 광주시민을 위해.

社說

선대위 출범 민주당 이제 공약 가다듬을 때다

더불어민주당이 열 세 명의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169명의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꾸렸다. 이른바 '용광로 원팀' 선대위다. 정권 재창출을 이뤄 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겼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선대위는 엊그제 '통합'을 표방한 첫 인선을 발표했다. 본경선에서 이 후보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명예선대위원장을, 김두관·박용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이낙연 캠프의 설훈·홍영표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돼, 경선 갈등을 넘어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이 반영됐다. 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이해찬·김원기·임채정·이용득 전 의원은 선대위에서도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용광로 선대위를 꾸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 요직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 측에게 돌아가 '무늬만 용광로 선대위'라는 뒷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맡겼더니 측근들을 요직에 앉혀 놨더라"며 "이걸 용광로 선대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다. 경선 기간 다른 캠프에 있었던 의원들 간의 화학적 결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번 선대위 인선에서는 예상과 달리 '여성 인사'도 잘 보이지 않았다. 20~30대 여성 지지율이 취약한 만큼 젊은 여성 인사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은 빗나갔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선대위는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대로 공약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기본소득 등 그동안 이 후보가 내놓았던 공약을 당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광주 시민에 10만 원 지급' 포퓰리즘 아닌가

광주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채만 1조 원이 넘는 광주시가 재원 마련을 위해 또다시 수백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2월 설 전후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48만여 명의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 예산 1480억 원은 시비로 충당하며, 5개 자치구에서 10%를 분담한다. 시비 재원은 지방세 세입 200억 원과 재난기금에서 마련하고, 75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 1조 원을 넘어선 데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의 재난기금 또한 고갈 상태여서 내년부터 이를 다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방채 발행은 광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시의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그제 열린 시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일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동의 여부 등을 따져 묻기도 했다. 지급 시기가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시민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광주시는 일상 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해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며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꼭 필요하다면 그동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마을연금

농어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고령화 및 고정적인 소득 부재다. 이는 탈농어촌 현상을 부르고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귀농·귀촌을 시도하는 이들도 고정적인 소득원을 구하지 못해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마을연금'을 통해 해결하는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정읍시 송죽마을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농촌 마을 노령연금'을 도입했다. 마을기업의 수익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2012년 공동체 사업으로 모싯잎을 재배한 것이 시초가 됐다. 주민들은 마을기업을 설립한 뒤, 귀촌 청년이 만든 가공회사에 계약 재배한 모싯잎을 시가보다 높게 납품하면서 차액을 마을연금으로 적립했다. 이렇게 해서 적립한 연금을 2014년부터 80세 이상 주민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을은 젊은층과 고령층의 합의로 주민 규약도 만들었다. 최근엔 모싯잎 계약재배에만 의존하지 않고 축제와 체험 행사 등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다변화하고 있다.

익산시 성당 포구마을은 태양광 발전 등 공동사업 수익으로 마을연금을 마련했다. 익산시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마을 공동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어 주고 여기서 나온 수익과 주민들이 운영하는 금강 체험 프로그램에서 나온 수익금을 더해 지난 8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매달 10만 원씩을 지급한 것이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이익 공유제'를 통해 주민들에게 '햇빛연금'을 지급한다. 전국 최초로 201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안좌도(96MW)와 자라도(24MW)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 이익금의 30%를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배당 이후 7월과 10월까지 모두 세 차례 3000여 명에게 한 번에 1인당 12만~51만 원까지 지급했다.

햇빛연금은 인구 유입 효과까지 낳고 있다. 4월 첫 지급 이후 배당금을 수령한 조합원이 12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신안군 인구도 올해 들어 251명 증가했다. 11월에는 지도읍,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사옥도 주민들도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마을 연금이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는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